

■ 주요 뉴스: 미국 3월 비농업고용,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

- 중동전쟁, 이란의 공격 강화 속 호르무즈 해협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 표결 연기
- 트럼프 대통령, 의회에 \$2.2조 규모의 '27회계연도 예산안 제출
- 유럽 주요국,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조치 시행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중동전쟁 불확실성 속 3월 고용지표의 예상 외 호조 등이 영향 주가 휴장[-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상승[+4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성금요일 휴일로 휴장
유로 Stoxx600지수는 성금요일 휴일로 휴장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, 안전자산 수요 등으로 상승
엔화 가치는 -0.04%, 유로화 가치는 -0.2%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견조한 3월 고용지표로 상승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성금요일 휴일로 휴장

※ 뉴욕 1M NDF 증가 1510.01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511.41원, 0.4% 상승). 한국 CDS 상승

		4/3일	4/2일	전일대비			4/3일	4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휴장	6,582.7	-	국채 금리 10y	미국	4.34	4.30	4bp
	유럽	휴장	596.63	-		독일	2.99	2.99	0bp
	중국	3,880.1	3,919.3	-1.00%		영국	4.83	4.83	0bp
	일본	53,123	52,463	1.26%	CDS 5y	한국	35	34	1bp
	한국	5,377.3	5,234.1	2.74%		중국	52	51	1bp
환율	달러지수	100.19	100.03	0.16%	위험 지표	EMBI+	휴장	294	-
	유로화	1.1519	1.1539	-0.17%		VIX	휴장	23.87	-
	엔화	159.67	159.6	-0.04%		WTI유	휴장	111.54	-
	위안화	6.8818	6.8851	0.05%	원자재	구리	휴장	558.4	-
	원화	1,505.2	1,519.7	0.96%		금	휴장	4,676.8	-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
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3월 비농업고용,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

- 3월 비농업고용은 17.8만명 증가, 실업률은 4.3%(전월 4.4%)로 하락. 경제활동 참가율은 61.9%(62.0%),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비 +0.2%(+0.4%),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.2시간(34.3) 기록
 - 전월 파업, 한파 등으로 부진했던 보건 의료, 건설, 여가·숙박업 부문에서 고용이 회복된 데 기인. 이 외에도 고용이 광범위하게 반등하면서 확산지수(56.8)는 약 2년래 최고수준으로 상승
 - 다만, 경제활동참가율 하락,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 증가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며,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 우려 상존
- 한편 미국 S&P Global 서비스업 PMI는 2월 51.7→3월 49.8로 하락하며 '23년 이후 첫 위축국면 진입. 소비자 대상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, 3월 하락폭은 팬데믹 봉쇄조치를 제외하면 '09년 통계 집계 이래 수위권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중동전쟁, 이란의 공격 강화 속 호르무즈 해협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 표결 연기

- 이란이 미국의 F-15E 전투기를 격추하고 또다른 미국 항공기가 걸프 지역에 추락하면서 종전협상 기대가 더욱 악화. 주변 걸프국의 주요 기반시설(에너지, 해수 담수화 등)에 대한 공격도 강화
 - CNN은 미국·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중 약 절반이 온전한 상태이며, 수천 대의 일회용 공격용 드론이 무기고에 남아있다고 보도
 - 한편, 프랑스 소유 컨테이너선, 일본 LNG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. 정부간 외교적 노력의 결과인지 임시적 협상 결과인지는 불확실
- UN 안보리는 금요일 '최소 6개월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에 상응하는 모든 필요한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'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성 금요일 휴일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

■ 트럼프 대통령, 의회에 \$2.2조 규모의 '27회계연도 예산안 제출

- 국방비는 기본 재량지출 \$1.1조, 이란과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의무지출 \$3,500억 등 \$1.5조로 대폭 증액('26FY \$1조). 그 외 국내 기관에 대한 예산은 10% 삭감. 금년 경제성장률은 3.1%, 4분기 실업률은 3.7%, CPI 상승률은 2.3%로 전망

■ 유럽 주요국,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조치 시행

- 이탈리아는 유류세 인하조치 만료 시한을 4.7일에서 5.1일까지 연장. 세금 감면 규모는 리터당 0.25유로이며, 재정은 €5억 추가 투입될 전망. 한편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'26년(0.6%→0.5%), '27년(0.8%→0.5%)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
- 프랑스에서는 르코르뉴 총리가 각료들에게 유가상승 대책 마련을 지시. 재정적자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, 월 단위로 시행할 방침

■ UN FAO(식량농업기구) 3월 식량가격지수(128.5), 상승폭 확대

- 전세계 식량가격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및 운송비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 확대(2월 1.1%→3월 2.4%). 비료 비용 상승,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곡물 및 주요 원자재 수송 차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

■ 터키 3월 CPI 상승률 예상(31.4%)보다 큰 폭 둔화

- 터키 CPI 상승률은 2월 31.5%→3월 30.9%로 하락. 다만, 중동전쟁 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정부의 가정용 전기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(최대 25%) 등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앞으로 반전될 소지

■ 미-중,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 안정화 징후

- 미국은 중국인 마약범죄 용의자를 중국으로 송환.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,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마약단속 협력에서 진전으로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

■ 중국 3월 서비스업 PMI, 전월대비 둔화

- 중국 서비스업 PMI(RatingDog)는 2월 56.7→3월 52.1로 하락(예상 53.6). 춘절 연휴 이후 소비자 수요 확장세가 약화되며 정부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 정책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

■ 일본 가타야마 재무상, 엔화 약세 속 외환시장 움직임에 우려 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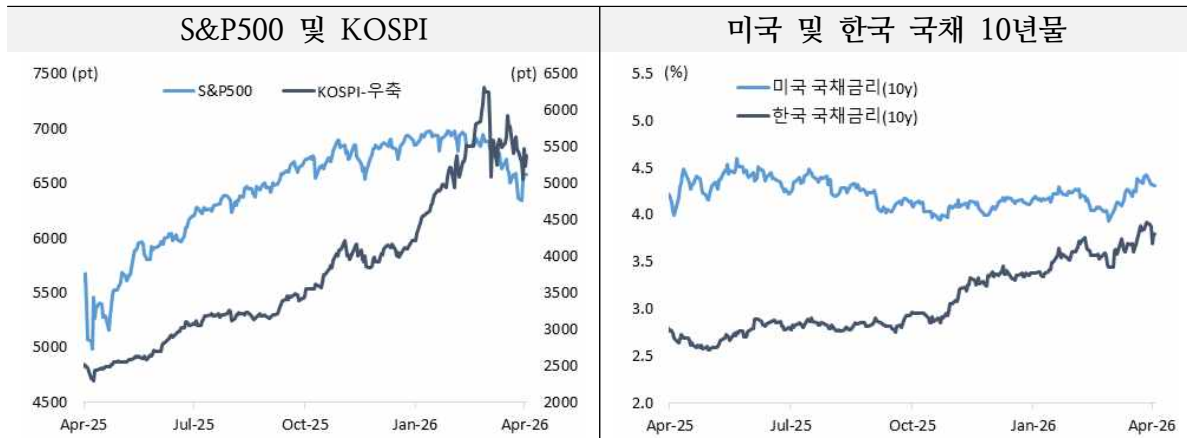
-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모든 방면에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으며, '과감한 조치'도 경고하는 등 시장개입 가능성 시사. 한편 현재 전세계적으로나 일본 내에서도 경제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첨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

- 미국 3월 CPI 및 2월 PCE, 2월 내구재주문, 3월 FOMC 의사록, 연준 인사 발언, 유로존 2월 소매판매 및 PPI, 중국 3월 CPI 및 PPI, 주요국 서비스업 PM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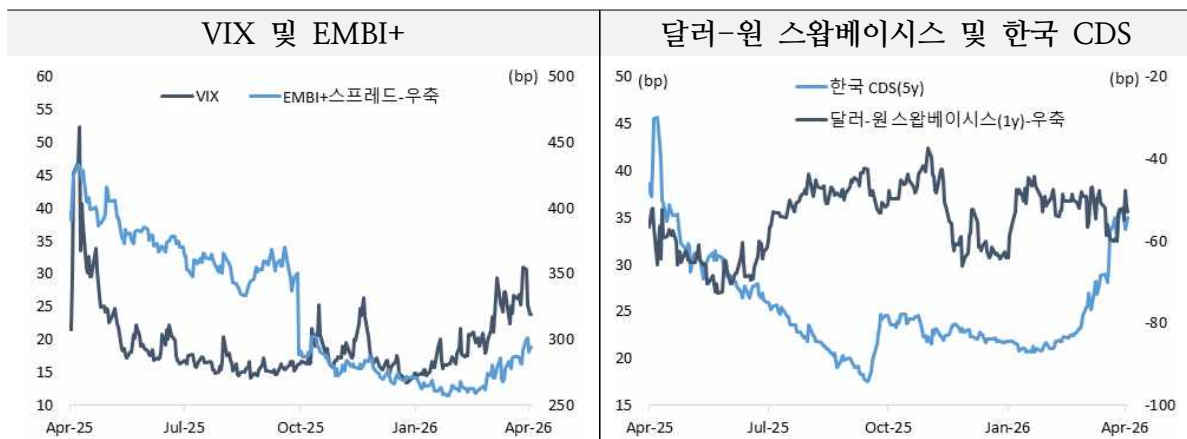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